

비 갠 어느 날 오후 광주천에서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비 갠 오후 광주천을 따라 걷는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불어난 물에 잠겼던 천변 산책로다. 참으로 길었던 장마 끝에 만나는 햇빛이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물계류를 등실 떠가는 파란 하늘을 보며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폭우로 잠시 몸을 숨겼던 바위들도 다시 물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크고 편편한 바위 위에서 노랑 부리 왜가리 한 마리가 물속을 응시하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녀석도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일 터.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화스럽고 한가롭게만 보인다.

평소 같은데 눈에 자주 띄었을 꽃말들은 자취도 없다. 보라색 작은 꽃들을 가려진 몸에 매달고 꽃잎이 서서 인사하던, 그 자존심 강한 맥문동(麥門冬)도 보이지

않는다. 애기뿔풀이나 꿩이밥 노란 꽃들도 온데간데없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다'는 풀들 역시, 한 번 앞드린 채 전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비는 그쳤어도 수마(水魔)가 활활고간 생채기는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 저기, 도로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이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부러진 나뭇가지나 덩굴이 떠밀려오다 난간에 걸려 있는 모습도 보인다. 지난 주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긴 하천 범람으로 양동 북계사가 하마터면 물에 잠길 뻔하기도 했으니.

예전엔 먹감도 빨래했건만

광주천은 건천(乾川)이다. 조금만 가물어도 이내 물이 마르는 내라는 예기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예전엔 홍수 피해를 염려할 만큼 수량이 풍부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의 광주천도 옛 도로변에 복원되어 있는 석서정(石書亭)이 그 증거다. 산책로에서 계단을 타고 오르니 이곳 정자의 내력을 돌이켜 소개해 준다. 비가 보인다.

정자의 기문(記文)은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려라'란 시조로 우리에게 익숙한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었다고 한다. '석서정기(石書亭記)'에서 그는 이 정자가 '수재 예방'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람들이 모여 한곳 풍류나 즐기자고 세운 건물이 아닌 것이다. 기문(記文)에 따르면 남산(南善山)에서 발원한 두 줄기의 하천(광주천과 증심사천)은 홍수 때마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던 중 광주 목사로 부임한 김상(金尙)이란 사람이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이 좁아지는 병목 부분의 물길을 터 분류 옆으로 새로 배수로를 뚫었다는 것이다.

"배수로는 읍성 옆을 돌아나가 광주천 반대편으로 나가게 했다. 그리고 광주천과 새로운 배수로 사이에 갇힌 땅은 마치 섬 모양이 됐고, 그 자리에 정자를 세워 석서정이라 했다. '석서(石書)'란 돌로 만든 물소란 뜻이다. 이색의 기문에 나와 있듯 돌은 산의 뼈대이며 물소는 물을 짓밟고 다니는 짐승이므로, 모두 물의 위험을 누르는 상징이라 정자의 이름으로 취한 것이었다."(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처럼 예전의 광주천은 주민들의 삶

에 대단히 위협적인 하천이었다. 특하면 범람을 일으켜 주변 농경지와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했다. 하지만 눈부신 백사장과 수조 무성한 둔치가 하염없이 펼쳐진 곳이기도 했다. 물도 깨끗해 잉어나 붕어 떼가 뛰놀았다. 아이들은 먹을 감았으며, 청년들은 투망질로 저녁거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아낙네들은 빨래감을 한 아름씩 들고와 방망이로 통통 두드리며 빨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쩐가, 비가 조금만 와도 생활하수와 오수(汚水: 구정물)가 합쳐져 영산강으로 흘러든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의 젓줄'로 불리던 광주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심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다. 도심의 '하수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소태천·서방천·극락천의 물이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건천인 광주천의 수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결국 공장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汚廢水)로 인해 '죽은 천'이 되고 말았다.

지금이나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맑은 물을 흘러보내고 있는 하천만,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천으로 더러운 물이 직접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수관거(下水管渠)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하수도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맑은 예산을 들여 하천을 복원해도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산강 살릴 비법 있다는데

나는 여기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최근 읽은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제목은 '아직도 오·하수가 흐르는 광주천과 영산강-그린 뉴딜로 그 대안을 찾자'. 이 글을 쓴 이는 먼저 하수(下水) 처리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알려 준다. 집전·희석 등의 물리적 처리, 미생물 신진대사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화학적 처리 기술이다. 광주시의 현재 하수 처리는 이상 3 단계로 끝난다.

그래서 여과 필터를 이용해 잔여 오염물질을 최종 처리하는 '막(膜) 여과'(Membrane filtration) 처리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필터 기술은 하수나 바닷물을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한다. '모래

여과'와 달리 '막 여과'는 소형화가 가능해서 용지 면적이 적은 소규모인데, 바 이러스나 세균 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설치비가 비싸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나는 '돈이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그린 뉴딜' 사업으로 광주를 '물 관련 필터 소재 생산기지'로 만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수 처리의 필수 소재인 필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광주천과 영산강을 일거에 청정 1급수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필터를 염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장문의 글을 아주 간략하게 줄여 보았는데,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이는 김강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다. 글을 다 읽고 나서 나는 김 이사장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돈이 문제로군요." 그의 대답은 달랐다. "돈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지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광주시 고위 관료들이라면 그의 글을 한번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특히 이 용성 광주시장에서는 꼭!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이번주 최대 고비

6일간 누적 확진자 1288명...국민 협조 절실

수도권 2주간 외출 자제...불법 방문판매 관리 강화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을 '전국 대유행 위기'로 진단하고, 국민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최근 옛새간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해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확산세를 꺾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적과 격리만으로 현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되는 한 주

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날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수도권 주민은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불법 단판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도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안

전신문고나 지자체의 신고·민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업을 중지된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별도 보상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영업자 피해를)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법에 따른 보상 범위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답답드릴 만한 내용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 늘어 누적 1만6058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부터 6일째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6일간 누적 확진자는 총 128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83명이고, 해외유입이 14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靑 "中 양제츠, 21~22일 부산 방문...서훈과 회담"

청와대는 1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22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오는 22일 회담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의 방문을 발표했다. 양 정치국원의 방문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문 이후 2년여 만이다. 서 실장이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양 정치국원을 만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서훈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주북대사는 한중 양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상태로 미룬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의정국을 맡은 한중이후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코로나19 완화 이후의 고위급 교류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바이든, 미 민주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

조 바이든(77·사진) 미국 전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맞대결이 본격화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본행사에서 대의원 공개투표인 '롤 콜'(Roll Call·호명) 투표를 통해 후보 지명 기준

인 대의원과 과반을 확보해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별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투표를 시작한 지 약 34분여만에 역사적인 지명을 확정 지었다. 50개주를 포함해 특별행정구인 위성탄DC, 미공령까지 포함, 총 57개 지역이 참여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

로 예정돼 있다.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은 대선후보로 지명된 후 화상 연설을 통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화면에 나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진심으로 매우, 매우 감사하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와 가족에게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목요일에 뵙겠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명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백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공고)

두산전력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함)의 주권회사 세컨엔지니어링(이하"을"이라 함)은 각 2020년 08월 1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재산의 일부(부동산)를 "을"에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합병530조 제2항에 의거 "갑"의 분할되는 재산부채 중 "을"의 정기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합병당일에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하고 회고한다.

2020년 8월 20일
- 아 - 래 -
1. 분할 합병 대상: 정기공사(영남-0100083)
2. (갑) 상 호: 두산전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윤수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화산로 54-(동외동)
3. (을) 상 호: 주식회사 세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정영, 김순희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기차의도사관길 86 (수영(향동))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공고)

주식회사 다연지천(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선우이엔지니어링(이하 "을"이라 함)는 각 2020년 08월 19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를 "을"에 합병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합병530조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제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거나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거나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0년 08월 20일
"갑" 상 호: 주식회사 다연지천
(법인등록번호: 200111-044190)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삼아2길 7, 8, 858호
(국가법령, 중흥에스-클래스캐기터미널)
사내이사: 정 해 화
"을" 상 호: 주식회사 선우이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70111-0387755)
주 소: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원흥로 283 1층101호
사내이사: 최유하

분할합병 및 주권제공고

주식회사 소순이엔지니어링(이하"갑"이라 함)과 화인엔지니어링(이하"을"이라 함)은 각 2020년 08월 19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를 "을"에 합병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합병530조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제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거나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8월 20일
"갑" 주 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70-1 2호
"을" 주 소: 주식회사 소순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정우
"을"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백제4길 6-7(수성동)
회 사 명: 화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함정자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함.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산280
2. 분묘묘기: 1차 - 1기
3. 개장일: 2020년 8월 29일
- 무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이 안되고 법의 개정
- 유연분묘: 재산명세서
4. 개장시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분묘개장: 여주시립향토문화재단
(연수시 소자연 봉우리 산190)
6. 연락처: 10번
7. 신고처: 김성진 평양시 평양을 사신280 101동 806호(부사신)
010-9430-7101, 010-9439-9256
8. 신고서류: 연고자 증명, 입증하는 호적, 제적증본, 묘지신고서 등
9. 신고서 접수처: 연고자 증명, 입증하는 호적, 제적증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상기 제반사항이 특별히 불문하여 누락되어 주가 발생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집행함.

2020년 8월 20일
공포인 김성진

산행안내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통령휴양실 저도 망봉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성계곡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여온 길 68년
70-1 2호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